

전일동향

전일대비 18.40원 상승한 1,519.70원에 마감

2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18.40원 상승한 1,519.70원에 마감했다.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0.90원 상승한 1,512.20원에 개장했다. 환율은 미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2~3주간 이란을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발표해 종전 기대감이 후퇴한 데 상승 압력 받으며 1,519.70에 증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 장중 변동 폭은 17.4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52.09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증가(15:30)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512.20	1524.10	1506.70	1519.70	1518.80
	엔화	945.11	956.23	944.85	952.09	-
	유로화	1739.67	1759.48	1738.65	1753.43	-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1.38	-4.87	-9.95	-17.16
	결제환율(수입)	-0.88	-3.35	-7.58	-13.53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 확인

금일 전망

유가 불안 완화 기대에...1,500원대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1.4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519.70) 대비 9.15원 하락한 1,509.1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유가 불안 완화 기대와 당국 경계감 속 하락 전망이다. 전일 트럼프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종전이나 해협 개방 관련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, 이에 국제유가 급등하며 위험회피 심리가 고조되었다. 그러나 간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위한 규약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에 시장에는 다소 안도감이 형성되며 전일 가파르게 상승했던 달러/원 환율에 금일 일부 조정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다. 이란 외무부 차관은 해당 규약 초안은 현재 준비 최종단계라고 언급하며, 이것이 항행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안전한 통과를 촉진하고 선박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전해, 금일 환율은 이를 반영하며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. 또한, 전일 재경부 차관이 최근 외환시장에서 일부 투기적 베팅이 관찰되었으며 과도한 쏠림 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당국의 구두개입도 하락 압력 우위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. 다만, 외국인 배당 역송금 증가와 수입업체 결제, 해외주식투자 환전 수요는 하단을 지지할 전망이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505.00 ~ 1516.60 원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1368.11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9.15원 ↓
	■ 美 다우지수 : 46504.67, -61.07p(-0.13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33.39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2157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